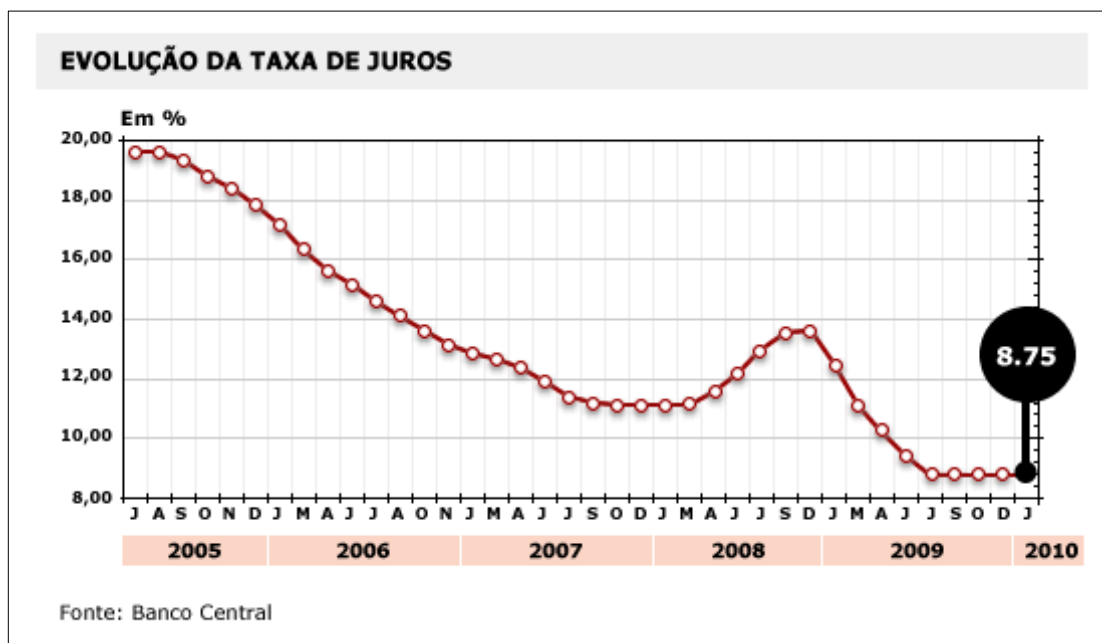


브라질 중앙은행, 기준금리 동결 연장

- 브라질 중앙은행내 통화정책심의회(Copom)는 2010년 첫 번째 회의를 지난 1월 27일(수요일)에 개최하고 현행 8.75%인 기준금리(Selic) 동결을 만장일치로 결정
 - 브라질 중앙은행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브라질내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현재까지의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 결과와 비교해도 특별히 현 시점에서 금리를 조정할 필요성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
- 2003년 플라대통령 집권 당시 약 30%대 수준이었던 브라질의 기준금리는 '08년말 13.75%에서 '09년 들어 1월 12.75%, 3월 11.25%, 4월 10.25%, 6월 9.25%, 7월 8.75% 등 총 5차례 연속 인하되었으며, 지난해 7월 이후 현재까지 동결 상태를 유지

브라질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추이



- 브라질 중앙은행은 차기 통화정책심의회(Copom)때 까지 인플레이션 등 브라질의 거시경제 현황을 점검하고, 금리정책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
 - 브라질 중은의 Focus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, 기준금리 수준은 금년 4월까지 8.75%를 유지하다가 2010년 말까지는 11.25%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내경제의 활성화에 따른 소비 증가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주요 논거로 제시
 - 2010년 광역소비자 물가 전망은 브라질 정부가 목표로 발표한 4.5% 수준보다 높은 4.6% 수준으로 전망하고 GDP 성장은 5.3%대로 전망
- 한편, 이번 기준금리 동결로 브라질의 실질금리는 4%대를 기록해 3.6%인 인도네시아, 중국의 3.3%, 호주 2.4% 일본 2% 등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

<사용파울루 사무소 제공>